



## 예수님의 큰 사랑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널 만난게 내 인생의 최악이야.”, “그쪽은 이제 내 삶에 들어오지마.”, “역겨워.” 등등 여러 가지 돌친 말들이 서로 오가는 곳. 가정 법원 앞의 풍경이라 합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맘은 어디로 간 걸까요? 상대방이 나를 배반하고 이런 말들을 퍼부을 것을 알았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마태 17,9)라는 말 속에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 과정도 함께 나눴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들 안에서 철저히 인간이셨던 예수님 —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7) — 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미래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이 아닐까요?

작은 비난에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큰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감당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의 상황들과 모습을 보면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더욱이 내가 너무나 사랑한 신자들이 제 앞에서는 저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소리를 듣든지, 지나는 길에 듣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웅홀하고 사랑이 적은 저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커야 그게 가능할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난하고 죽는다? 엄두도 안 나는 사랑입니다.

이토록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 —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5) — 은 저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에 멈추어 쉽게 “예.”라고 답하기 힘들어집니다. “예.”라는 말 대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나고 말하게 합니다. 얼마나 큰 고민과 결심이 서야 할까요?

이토록 크신 사랑 앞에서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큰 사랑 안에 안기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분의 큰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거룩한 변모에 앞서 그분의 고민과 결심을, 부활에 앞서 수난과 죽음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 2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입당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창세 12,1-4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

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2티모 1,8-10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  
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

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태 17,1-9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  
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  
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빛과 소금은?

2026년 교구장 사목교서 해설을 통해 교구민이 '함대하는 공동체의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연재되는 공간입니다.

# 묵상 기도, |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2-2

김범중 안토니오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일반적으로 묵상(默想, Meditatio)이란 어떤 실재나 개념을 더 깊고 완전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고(思考)를 집중하여 그 대상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 삶을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생명과 친교, 사랑의 신비에 따라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묵상기도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지성과 기억, 의지를 모두 활용하여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상기도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다양한 실재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느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비, 성체성사, 교회, 은총의 선물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묵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의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묵상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묵상기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묵상은 지적 활동을 수반하지만, 단순한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식된 실재와 친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앞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정감(情感)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 말씀의 묵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상황, 과거의 경험, 현재의 필요 등을 성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작업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묵상은 단지 하느님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만남을 통해 주님과 친교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란 하느님의 말씀이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자신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가 자신의 감정과 결심, 사랑의 행위와 자기 봉헌의 행위로 연결될 때, 우리의 영성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꾸준한 묵상기도는 신앙인과 하느님의 관계를 더 지속적이고, 인격적이며, 깊은 친교로 인도합니다. 꾸준한 구송기도와 묵상기도를 통해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 영혼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며 단순하고 신뢰에 찬 방식으로 그분과 대화하거나, 말없이 그분 앞에 머물며 사랑하는 분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잠깐의 기도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앙인의 온 삶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한 신앙인은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피조물 전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며, 그분의 뜻에 일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방법으로 하루의 사건들을 그분께 말씀드리며,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청하며, 자신의 활동과 노동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영혼 깊은 곳에 내주(內住)하시며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흐름이며,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음을 아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깊고 생생하게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1:1, 1:2  
성체성사2:1, 2:2  
묵상기도3:1, 3:2  
겸손과 예덕4:1, 4:2  
성인들의 환대

매일  
한 걸음씩

주보에 성가지(聖枝) 회수 공지가 나오면 ‘이제 곧 사순시기가 시작되는구나’하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사순시기 동안 속죄와 회개의 실천으로 나만의 작은 약속 한 가지를 정해 지키려고 노력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일이 저의 봄맞이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각 방 십자고상에 걸린 가지들을 봉투에 담으며 이번 사순시기의 다짐은 ‘미루지 않기’로 정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의 저는 사자(獅子)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밀리고, 성경 읽기도 밀리고, 답장도 밀리고... 일찌감치 현관 선반에 챙겨 둔 성가지조차 미루고 미루다 마감일에 낸 ‘밀림’의 왕 사자!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마음속 결심을 다음 날로 넘기고, 변화가 필요한 때에도 좀 더 이따가로 덮어두는 습관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그 미루기 속에는 두려움과 게으름, 그리고 스스로 온전히 내맡기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미뤄 둔 것은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첫걸음을 늦추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빛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 빛을 향해 몸을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이 눈부신 빛을 보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엉뚱한 말을 꺼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두려워하는 모습이 웬지 낯설지 않고,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빛을 보았지만 아직 그 빛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어, 저 역시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순간보다 익숙한 미루기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 머뭇거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의 더담을 조용히 감싸 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책망이라기보다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 주는 낮은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사순시기 동안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미루지 않으려 애써 봅니다. 짧은 기도를 오늘 드리기, 미뤄 둔 안부를 지금 전하기, 완벽히 끝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기. 눈에 띄지 않을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런 날들이 쌓이면 마음의 방향도 서서히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빛은 산 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로 내려와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나지막이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따라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망설여도, 오늘의 한 걸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빛을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장민영 클라우드아 | 은행동 본당



## 재의 수요일 미사

교구 홍보기자 최옥희 안나



2월 18일(수)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교구 사제단 집전으로 재의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정신철 주교는 강론을 통해 사순시기는 부활을 향한 여정이자 영적 쇄신을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순시기 담화문의 주제인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루카 22,61)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시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단죄나 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시선”이라며, 이번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며 우리의 삶도 하느님 중심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신자들은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을 통해 회개와 복음 선포의 의미를 되새겼다.

## 2026 동계 학교법인 기관장 워크숍

교구 홍보실,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2월 20일(금)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사무총장 윤만용 바오로 신부)의 주관으로 2026년 동계 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을 비롯해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스텔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기관장 총 7인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기관별 2025년도 하반기 추진실적과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성과에 대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으로 양 대학의 대학기관평가인증 대응 계획, 국제성모병원의 지역 심뇌혈관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마리스텔라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이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경영방침과 운영 철학을 공유하며, 기관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본당 신임 생태환경분과장 활동 교육 및 안내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2월 21일(토) 사회사목센터 105호에서 교구 생태환경사목부(사회사목국장, 부국장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의 주관으로 본당 신임 생태환경분과장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각 본당에서 새로 선출되거나 이임된 신임 분과장과 처음으로 생태환경분과를 설립하고자 하는 본당 신자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다. 강의는 최 이나시아 마리아 수녀(교구 생태환경사목부 담당)가 분과장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생태환경교육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시설 견학과 환경 미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프란치스코회)가 생태적 회심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영상물 통해 교육하였다. 참석자들은 환경 보호가 단순히 실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적 실천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지구별 대표 구역분과장 모임

교구 홍보실



2월 21일(토) 교구 복음화사목국(국장 정병덕 라파엘 신부)에서 지구별 대표 구역분과장 모임이 진행되었다. 특히 교회 구성원들이 경청과 식별하는 시노드 과정의 핵심 방식인,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문서’의 ‘성령 안에서 대화’를 채택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신부는 “본당 선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구역분과장분들의 목소리야말로, 교구 차원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시노드 이행 단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한 교우들은 2027 세계 청년대회(WYD)를 앞둔 신앙인으로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제공된 나눔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 및 본당에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녹색 순교

친환경 식생활 편

백남정 로사  
교구 생태환경사목위원

## 고기 먹는 횟수 1회 줄이기



육식은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0~20%가 축산업에서 배출되며, 특히 소와 양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고기 섭취 횟수를 1회 줄이거나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닭고기로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지구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금요일을 ‘금육의 날’**로 정해 고기를 절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깊은 사랑이자 **신앙의 실천**입니다.

# 2026년 사순 피정

청소년사목국에서는 「2026년 사순피정」을 진행합니다. 사순피정은 그리스도의 수난 여정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청소년사목국에서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3/28(토)~29(주일) [1박 2일]  
장 소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 상 교구 내 청년 만 19~45세  
참가비 1인 70,000원  
신청 3/6(금)까지, 구글 폼(QR코드)  
문의 032-765-6964, 카카오톡 채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 2025년 사순피정 참가자 소감문

- 성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비하신 하느님과 정의의 하느님 사이에서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찰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20분 이상 이어진 고해성사를 통해 단순한 회개를 넘어 신부님과 깊이 있는 면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나눈 고해의 시간은 큰 위로가 되었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십자가의 길 묵상을 통해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깊은 감사와 위로를 느꼈습니다.

- 사순 시기와 성주간 전례의 의미를 깊이 배우고, 묵상 주제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금 느끼며, 부족한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강의와 묵상, 고해성사 모두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개인 기도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 이번 피정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기도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드/편/니/문/과/학

### 2026년 교리교사 등록제 안내

대상: 인천교구 내 교리교사  
목적: 각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 현황 파악 및 필수 이수 교육 현황 파악  
등록기한: ~3/31(화)까지,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 2026년 젊은이와 함께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주교님과 함께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에 유소년, 청소년,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3/29(주일) 11:00 성모순례지  
대상: 교구 내 청소년 및 청년, 교리교사  
신청기간: ~3/16(월)까지  
문의: 032-765-6964



교구 청

제25회 노동자 주일 기념 감상문 공모전

독서: 『사랑과 노동』,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중 1권)  
영화: 「미안해요, 리키」  
대상: 교구 신자  
마감: 3/31  
접수: 구글 폼(안내 포함)  
문의: 032-865-6792



566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3/29(주일) 13:30~18:30  
장소: 복자 이안나 홀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난 삶을 성찰,  
의미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일시: 3/16~25, 4/20~29,  
5/18~27, 6/15~24 [10일]  
장소: 강원도 홍천(서울 출발)  
대상: 60세 이상  
금액: 100만원  
문의: 010-7451-9707

ICPE 로고스 맘 온라인 신앙교육

일시: 3/11 10:00~12:00  
대상: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문의: 010-5646-6594

ICPE\_청년 제자훈련 [1년 과정]

일시: 3/14 15:00 OT  
장소: 합정ICPE센터  
대상: 청장년  
문의: 010-5646-6594

가톨릭성서모임 성서사십주간

일시: 3/9~27/1/25 20:00 (비대면)  
회비: 5만원  
문의: 032-765-6967

성체신심 치유기도회 및 철야기도

·성체신심 치유기도회  
일시: 3/7(토)~5/16(토) 12:00~17:30 [7주간]  
대상: 전 신자 누구나(접수비 없음, 안수, 중식 무료)  
·삼성산 화요 철야기도  
일시: 매주(화) 21:30~4: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미사, 안수)  
문의: 010-3310-8826, 02-874-634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사순 대피정

일시: 3/23(월) 10:00~17:00(점심 무료 제공)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 샘  
(중동역 5분 거리)  
강사: 박현민 신부(강의, 미사, 안수), 한영임 회장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암환자 무료 피정

피정기간: (월~목) [3박 4일]  
장소: 강화도 마뽕섬터  
참가자격: 거동이 가능한 암환자  
문의: 010-3355-1946 마뽕암재단

성체조배와 일일피정

주제: 하느님의 사랑  
일시: 3/8(주일) 10:00~16:00  
(9:00 미사 참석 가능)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00~16:00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3/3 김현우 신부, 3/10 박현민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화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3월 사순시기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3/12~14,  
3/29~31  
차귀도, 올레길 포함: 3/7~9, 16~18, 26~28  
4월 엠마오 떠나는 자연순례: 4/6~8, 7~9,  
4/11~14(추자도 포함)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3/20(금)~23(월), 4/17(금)~20(월),  
5/15(금)~18(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 순례: 3/27~29, 5/9~11, 15~17, 21~23,  
6/19~21, 7/3~5  
추자도 성지순례: 3/5~8, 12~14, 18~21,  
5/29~6/1, 8~11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프란치스칸 효소 단식 피정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일시: 매월 셋째(금~주일) [2박 3일]  
장소: 끈벚뚜알 프란치스코회(주최) 양평 수도원  
참가비: 25만원  
문의: 010-8858-7814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3/14(토) 11:00~15(주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회비: 9만원(사전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010-5490-5345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성령안에 안식피정

[1차] 3/9(월) 14:00~10(화) 14:00  
[2차] 7/6(월) 14:00~7(화) 14:00  
[3차] 9/14(월) 14:00~15(화) 14:0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1인실-10만원, 2인실-9만원  
문의: 010-5490-5345

제5차 미리내성령묵상피정

일시: 6/19(금) 13:00~21(주일) 15:00  
장소: 미리내 묵상의 집  
강사: 한연흠, 한승주, 이관배 신부 외  
회비: 22만원  
문의: 010-4416-6445

청연 성당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일시: 3/1(주일) 11:00 미사만,  
3/7(토) 16:00 음악치유팀 SOL과 함께  
장소: 청연 성당  
문의: 032-832-2361

3월 전례꽃꽂이 월례미사 및 교육

일시: 3/5(목) 14:00  
장소: 박순집 베드로 홀

모집 | 일반

박춘동 성당 '기도의 벽' 신청

·본당 4층 야외정원에 지향자 성명 각인:  
지향 1인당-1백만원(분납 가능)  
·매월 첫째 주(토) 생미사,  
둘째 주(토) 연미사 봉헌  
문의: 010-2213-3914

하늘의 문 성당 봉사자 모집

미사 전례봉사(해설, 반주, 독서), 청소, 시설 안내  
주소: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인천 서구 당하동 764-1)  
문의: 032-765-7251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

제2기 안내-전례 봉사자 모집

자격: 성지 신앙에 관심있고 교육 이수 가능하신 분

봉사: 성지 및 기념관 안내 해설, 행사 지원,

전례 준비 및 진행 보조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사진), 교적사본 1부

모집: 00명 | 마감: 3/4(수)

접수: leesh\_seongji@caincheon.or.kr

면접: 3/6(금) 15:00 | 교육비: 10만원

문의: 032-765-6916, 467-0771

수어교육 (3/3부터)

기초반 (화, 목) 19:00

기초반 (월, 목) 10:00

전례수어반 (금) 14:00

문의: 032-832-2361 청연 성당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II

주제: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청년은 교회 어디에 서있나?,

삶의 자리에서 순례자로 살기,

인문학은 어떻게 신앙과 만나는가?

일시: 3/5~26 매주(목) 19:30 [4강]

방식: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청년 할인)

강사: 정희완 신부, 주원준, 변미리, 김경집

문의: 02-2135-9398 한국CLC

자비와 회복학교 1학기 수강생 모집

일시: 3/10~6/30 매주(화) 10:30~12:30 [16주]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문의: 010-8911-5957, 인터넷 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상담자 노경덕 신부

글라젯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가족 및 직장관계,

학교 부적응 및 진로상담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 상담료: 1회 1만원

문의: 010-7794-6031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2026년 영적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 모집

일시: 4/11~5/9 매주(토) 10:00~16:50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원목자 및 일반인

방법: 대면(1, 5주차), 비대면(2~4주차)

마감: 3/24(화) 15:00까지 | 등록비: 25만원

지원 방법: 홈페이지 hospice.catholic.ac.kr

문의: 02-3147-8653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맨발 가르멜회 인천 재속회원 모집

가르멜 성인 성녀들의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 교우

문의: (월) 010-4740-2402, (토) 010-2076-5159,

(주일) 010-7410-7621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성 프란치스코 영성으로

복음적 삶을 살기 원하는 남·여 교우

문의: 010-3012-2163

☞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교육원

순례 | 기타

성심 해외 성지순례

4/9 이태리 성체 성혈 기적 성지 [10일]

(아씨시, 산조반니로폰도 포함)

지도: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대표

미카엘 성지순례(제주도 6명부터 출발)

4/9, 5/28 나가사키 [4일]

4/24, 5/15 홍콩, 마카오 [4일]

5/11, 6/17 베트남, 다낭 [5일]

9/17 (추석) 동유럽 5개국 [12일]

문의: 010-8650-9690

바로로 국내·외 성지순례

3/14 희망의 순례: 수리산, 손골, 한덕골 교우촌

3/21(토)~23(월) 제주도, 추자도

3/28 수원교구: 은이, 골베마실, 어농, 죽산,

단내, 미리내 성지

5/26~6/6 성모 발렌지,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반뇌

문의: 010-9200-3532

2026년 간 김에 순례(성지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문의: 010-5577-3605,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배너 참조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4/6~10 베트남 다낭, 짜꾸우, 라방 성지순례

10/15~18 오사카, 교토, 나라 성지순례

문의: 010-8705-0319



2026년도 봄학기 사제의 영성나눔

일 시 3월 26일~6월 25일 매주(목) 10:00~12:30 [13주간]

강 의 · 지혜와 신앙(철학) 김현태 루카 신부

10:00~10:45 + 15분 휴식

· 이사야서(성서)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

11:00~11:45 + 15분 휴식

· 미사 12:00~12:30

등록금 80,000원

계 좌 신한 032-46-12001656(예금주: 신교선)

신 청 010-3480-8127 신교선 신부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 밖에 없습니다.”

(시편 16,2)